

제 124회  
6월 11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 124회 발명교실이 지 ... ○
- ... 난 6월 11일 발명장 ... ○
- ... 러관 연구실에서 개 ... ○
- ... 최되었다. 매월 둘째 ...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 교실은 이 달에도 1 ... ○
- ... 백여명이 참석하여 ...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자동차용 에어팩 안전의자 겸 매트리스

미도물산 정헌운 사장

1960년대초 미도핸드백이  
란 상호로 출발하여 슬한  
성공과 좌절의 갈림길을 오  
가면서 끝내는 재기에 성공  
한 불굴의 발명이 정헌운.  
그는 지금도 기술개발 관련  
메모지가 어지럽게 널린 사  
장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발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  
들은 대부분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와 매우 친숙해 있다. 그  
만큼 파란만장한 생활의 연속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사장이 이끌고 있는 지  
금의 미도물산은 60년대초  
미도핸드백이란 상호로 출발  
하였다. 그당시 쓸만한 핸드  
백 하나 없던 시절에 정사장

이 개발한 핸드백은 그야말로  
대인기였다.

여성용 비닐손지갑부터 시  
작하여 견고하고 외관도 말끔  
하게 마감처리되어 만들어진  
핸드백은 미도라는 상표로 더  
욱 알려져 인기가 높았던 것  
이다.

먹고 살기도 바빴던 시절  
에 비닐을 이용하여 손으로  
쥐기 좋은 크기의 지갑을 만  
들고, 또 비닐속에 이런저런  
예쁜 꽃모양의 장식을 넣어  
장식품으로써의 역할까지 하  
게 만든 손지갑은 잘 팔릴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돈도 무  
척이나 많이 벌었다. 정사장  
의 머리속에선 끊임없이 아이  
디어가 떠오르고 만들면 성공  
하고, 실패는 남의 일처럼 느

껴졌다.

그러나 정사장에게 부족한  
게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경영  
능력이었다. 기술인으로서 잔  
뼈가 굵어온 그인지라 관리능  
력은 다른 분야보다 부족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  
게 운영을 해야할지를 몰  
랐다.

아니나 다를까 60년대말에  
만들기 시작한 가죽핸드백이  
팔생을 부렸다. 원인은 날  
타이었다. 핸드백 자체가  
씨와 기후에 영향을 받는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가  
드백이 따뜻한 날씨에  
만 재고가 산더미처럼  
다. 판매가 부족하다보  
금회전이 안되는 것은  
일. 결국 부도가 나고

# 발명교실

## 성공사례 등 발표

- ... 이날 발명교실에 ...○
- ... 서는 새생각회 강신 ...○
- ... 목회장의 발명의 발 ...○
- ... 상기법에 대한 강의 ...○
- ... 에 이어 미도물산 정 ...○
- ... 현운사장의 성공사례 ...○
- ... 발표가 있었다. 발명 ...○
- ... 가의 성공사례를 간 ...○
- ... 추려 소개한다. ...○
- ... <이두성記> ...○



예비재벌이란 소리를 들던 미도가 부도가 났다는 말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때 나이 20대 후반 누가봐도 젊은 나이였다. 미도핸드백 사장으로 7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며 겁 없이 활동했던 정사장은 끝내 영어의 생활도 경험해야 했다.

‘확고한 신념으로 도전을 하면 분명 길은 있습니다.’

정사장은 머리속에 이말을 되내이길 수십번. 정씨는 재기를 위한 상품으로 자동차용품을 선정하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함께 시대의 유행에 따른 흐름도 파악하였다.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졌더라도 손익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아는 배짱도 키웠다.

자동차용 에어팩 안전의자 겸 매트리스.

발명이 정씨는 미도핸드백으로 출발할 때부터 비닐이나

가죽제품과는 손을댈 수 없었다. 자동차용 제품에 착안하게 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가 ‘L’자형의 고정식이라 딱딱하여 충격시에 상처를 입기 쉽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씨는 충격완화에 제일 좋은 에어팩을 만들어 5개월간 연구한 끝에 ‘L’자 대신에 부채형태의 주름을 이용하여 180도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조절장치를 부착시킨 안전의자를 개발. 매트리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평판이 대단히 좋았다.

지난해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7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안전의자와 각종 약세사리, 세탁기 부품, 문구류 등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탁틴이란 자사 브랜드

의 가방도 만들어내게 되었다.

결과가 이렇고 보니 여러 군데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쳐왔다. 무역진흥공사로 부터는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행운도 따랐다.

60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도 지칠줄 모르고 땀을 흘리고 있는 정씨는 진정 우리시대의 본보기가 될만한 발명가이다.

60년대초 미도핸드백이란 상호로 출발하여 숱한 성공과 좌절의 갈림길을 오가면서도 끝내는 재기에 성공한 불굴의 발명가 정현운. 그는 지금도 기술개발관련 메모지가 어지럽게 널린 사장방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